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 목탁소리

스님 모신 '승당' 섬주민 안식처

목포에서 뱃길로 162km.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우뚝 선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소흑산도). 시인 조태일이 너무 멀고 험해서 오히려 바다 같지 않은 거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던 섬'이라고 표현했던 최서남단 낙도에 불교의 꽃이 피고 있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스님을 마술 수호신처럼 모신 승당을 갖고 있는 가거도. 그래서 딱히 불교교리를 정식으로 배운적은 없었지만 승당의 영향 아래 살았던 탓에 태어날 때부터 불자였다'는 자부심을 간직해 온 주민들. 지난 1910년대 들어온 기독교 영향으로 승당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맞보아야 했던 불자주민들은 지난 90년 다시 살아난 불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애정이 눈물겹도록 지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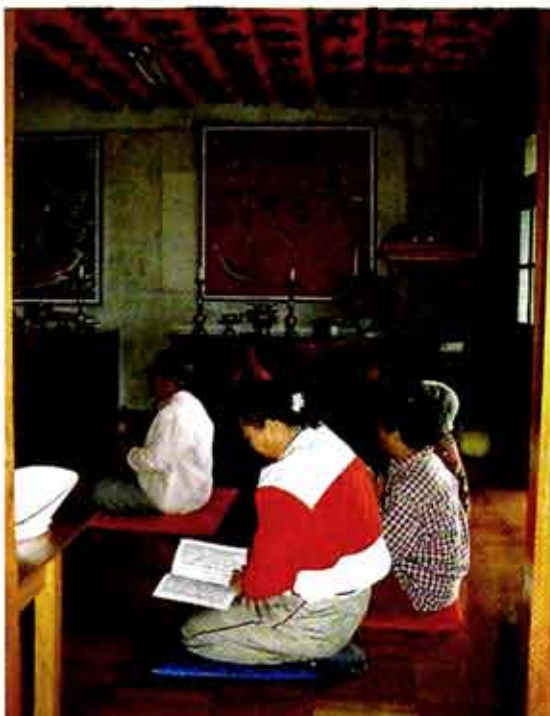
22년전 용공사 창건

초파일엔 마을 큰잔치

20일, 가거도 대리마을 선녀봉 자락에 위치한 용공사에서 박성금 75 주지보살이 김운순 74 최상려 69 이훈단 60 임항단 61 박부자 60 김월자 68 총무보살들과 연등을 만들며 등놀이 및 마을잔치 준비에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보살들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연등 200여개를 부처님오신날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약속한 손놀림을 계속했다.

다음날인 21일, 아침부터 용공사에 신도들이 트럭을 타고 왔다. 박성금 보살과 김영후(전남도 무형문화재 22호 딸치잡이노래 보유자) 선생 그리고 4명의 보살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마을 뒷산 사자재 후라나무에 2량 남짓한 승당을 참배하려 왔다.

가거도에 전해오는 얘기로는 수백년 전 한 스님이 가거도에 표류하자 이 터에 집을 짓고 수행하다 입적했다고 한다. 외딴섬 낙도에 불교를 전파한 스님이 입적하자 마을 주민들은 스님을 기려 승당을 지어 마을 수호신으로 모셨고 매년 정월 초하루 전체 섬주민이 제사를 지내 왔다고 한다. 이 제사는 가거도 주민을 하나로 묶고 섬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동체 행사로 자리잡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불교가 다시 살아날수 있었던 것은 용공사 창건되면서 부터다. 사진은 박성금 보살과 신도들이 목탁하는 장면



○인간문화재 김영후선생이 가거도 승당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1917년 전래된 기독교세가 득세하면서 어촌공동체의 상징적 행사였던 승당 제사가 중단되고, 건물도 무너져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스님을 수호신으로 모신 승당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살았던 일부 불자 주민들은 부처님을 열원했다. 한 보살은 승당이 폐쇄되고 개인교인들이 입교를 권했지만 뿌리치고 '부처님과 조상님들은 아실 것이다.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막연한 발

원을 몇 년간 되뇌었다고 했다.

드디어 1974년 방파제 공사를 위해 임도한 상부토건의 공사가 5년간 해풍으로 인해 모두 유실되는 등 진척이 없자 확실한 불자였던 2대소장 최희복씨가 가거도 현장에서 부임했다. 재소장 부부는 가거도에 오자마자 방파제공사 완성을 발원하며, 1979년 해수관측보살입상을 모신 4량자리 오자용공사를 건립했다. 방파제 공사는 이후 3년만에 순탄하게 완공되고 1990년 상부토건 재희복소장이 본사 전무로 승진해 서울로 가며 용공사 관리를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박성금보살등 불자주민 4명에게 위임했다. 박보살등 4명의 보살은 용공사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10년 만에 불교세를 4가구에서 40가구로 늘렸다.

용공사는 스님도 없이 4명의 작은 법당 하나만 존재하지만 가거도 불교를 일으키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되살리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용공사가 제 역할을 찾으면서 불심이 점차 살아나 1995년에는 마을 부녀회에 의해 부녀진 승당도 재건됐다.

가거도 불교의 맥이 끊기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은 박성금 보살을 중심으로 한 불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공덕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용공사가 창건되고 몇 번이나 스님을 모셨지만 절 규모가 워낙 작고 신도도 별로 없다 보니 1-2개월을 못 넘기고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런 속에서도 가거도 불자들은 스님을 제칠 때 어깨 너머로 열심히 집친 방법과 불경을 외웠다. 그런 뒤 박성금 주지보살과 5-6명의 보살들은 매일 아침 4시면 절에 올라와 2시간 30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축원기도를 한다.

10여년간의 끊임없는 보살들의 정진에 부처님도 응답했다. 용공사 불자들도 대폭 늘어나고 부처님오신날에 용공사가 개최하는 '등놀이'

10년째 새벽 축원기도

불자 40가구로 신장

이 행사는 이제 마을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가 됐다.

박성금 주지보살은 "열불 태일 을 스파키로 불다가 개신교 목사의 신고로 2번이나 파출소에 가고, 목사가 새로 부임해 올 때마다 절까지 찾아와 방해하는 그들의 배타성 때문에 한바탕 싸움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다만 신도들을 위한 성경, 법문태일과 경전 불교의식집 등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0611246-5454.

마을청년인 조운찬(남해여관 대표)씨는 "고유의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승당의 마을제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공사 총무인 김월자보살도 "용공사가 더욱 발전되도록 뜻 있는 스님 이와 주셨으면 한다"며 "중단등록이 빨리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박성금 주지보살은 "현재 용공사가 사유지에 건립돼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종단에 등록하여 사람이 영원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가거도=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4월22일 새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새법당 준공

사부대중 4천명 참석...유치원도 추진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해안)은 4월 22일 5년만에 새 법당 준공법회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공우스님, 정각원장 법산스님, 김태호 국회의원 등 4천여명

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경과보고, 대동개발 윤낙성 이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행스님은 "마음의 작용은 달지 않는 것이 없으니 다함없는 정진으로 내면에 구축되어 있는 자성을 밝혀 자유스러운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법문을 했다. 대지 3500평 건평 9백평 규모로 대웅전, 요사채, 후원강당을 완공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앞으로 유치원 건립을 위한 불사를 계속하게 된다.

울산=천미희 기자

"가야산 순환도로 반대"

해인사 환경위 발족

조계종 해인종림 해인사(주지 세민)는 4월 25일 방장 법전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산환경위원회(위원장 정원스님) 발족식을 갖고 해인사 순환도로의 개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스님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해인사의 수행환경과 가야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도로 개설에 반대한다"며 "경남도의 토지 보상 협의

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도로 개설 예정부지에 해인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철장을 둘러쳤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중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성거리 5.18km의 구간으로 경남도가 지난해 3월 착공, 오는 2000년에 완공할 예정이지만 토지 소유주인 해인사 등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경남도가 오는 6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회

경주남산지도 새로제작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경주남산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새로운 남산지도를 토대로 이후 새도를 제작했다.

송재중 교사(경주 아회중)가 만든 기존의 남산지도를 토대로 이후 새도가 발견된 유적을 추가하고 유적들이 소재한 해발고도를 표시해 남산

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했다.

도 경주문화유적전도는 손익이름은 물론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유적을 망라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향토자료까지 수록했다. 경주 남산지도는 휴대하기 간편하게 포켓용으로 제작되어 있다. (054774-1950)

이경숙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식은 본래는 인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 45번지 당시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워터드 김희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종종사 임직원들은 "장인정신" 이란 一心으로 범종불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종사 임직원일동 합창



중량 3,300관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